

Ⅲ. 고려의 등장과 발전

주제) 무신정변

학 교	
학 번	
이 름	

1. 무신정변의 원인

- 고려는 오랫동안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천시
 - 고려의 군대의 지휘권을 가진 장군들은 대부분 문신출신
 - 고려 무신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상장군은 정3품에 불과
 - 고려시대에는 과거시험에서 무과를 (실시하였으나 중요성이 낮음 / 실시하지 않음)
- 고려시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던 군인전을 문벌귀족들이 가로채면서 군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짐
- 무신정변 당시 의종이 지나치게 문신들을 우대하면서 이에 대한 무신들의 불만이 매우 커짐
 -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하였을 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
 - 당시 의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경주로 유배, 새로운 왕을 집권하도록 하고 무신들이 권력 독점

2. 무신들의 국가 권력 장악

- 무신집권 성립기
 - 집권자의 변화

	- 보현원 사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 이의방, 이고가 권력을 장악 -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을 중심으로 정치 (), 이의방, 이고 간의 불화로 이들간의 권력 다툼이 나타났고 결국은 ()가 권력을 독차지
	()가 권력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젊은 무장이었던 ()이 ()를 암살하고 정권을 차지 -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을 설치 - 결국 이른 나이에 일찍 병사
	- 무신집권자의 공백이 나타나면서 경주의 의종을 살해한 ()출신의 ()이 권력을 장악 -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수탈
	()은 자신의 동생 최충수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당시 집권자였던 ()을 제거 - 이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위를 물려줌

※ 다음 그림을 왼쪽의 해당되는 부분에 붙여 봅시다.



② 무신집권 성립기의 특징

- 무신집권자들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잦은 집권자의 교체가 나타남
- 당시 문신들과의 (친선 /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문신들의 관직 진출이 (가능 / 불가능)
- 무신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문신들이 (교종 / 선종) 승려들과 연합하여 반무신란을 일으킴(조위충의 난, 김보당의 난)

2) 무신집권 안정기(()씨 무신집권기)

- ① ()이 권력을 장악한 뒤 무신집권자들간의 다툼이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
- ② 4대 60년 동안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며 권력을 독점
- ③ 당시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적 식견을 보완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지지하는 문신들을 정계로 진출시킴
→ 이후 ()세력의 기원이 됨
- ④ 집권자별 특징

※ () ◦ 집권 후 국가정치개혁을 위한 봉사 10조 건의 ◦ ()을 설치하여 무신집권기 최고권력기구로 운영	⇒	※ () ◦ ()을 설치하여 문무관리의 인사권 장악 ◦ ()를 조직하여 야간의 도둑 단속 ◦ ()의 침입이 나타나자 ()로 천도하여 결사항전	⇒	※ () ◦ 최우의 서자이며 원래 승려였으나 음서를 통해 관직에 오름 ◦ 자신의 계모를 독살하고 많은 관리를 죽임	⇒	※ () ◦ 몽골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의 과정에서 권력을 유지 못함 ◦ 결국 김준, 유경 등의 배신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
--	---	--	---	--	---	---

※ 다음 그림을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붙여 봅시다.






3) 무신정권 쇠퇴기

- ① 고려가 ()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됨
- ② 당시 김준, 임연, 임유무 등이 권력을 장악하여 무신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실패
- ③ 무신정권이 몰락하게 되면서 고려는 ()의 부마국으로 이들의 간섭에 시달리게 됨

4) 무신집권기 독자적인 정치기구

정치기구	기 능
	◦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으나, 무신정권 초기의 지배기구로서 기능을 담당
	◦ ()이 만든 사병기구로 호위 담당
	◦ ()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정치기구로 각종 정책 집행
	◦ ()가 만들었던 인재 행정 독점 기구
	◦ 문신 숙위 기구
	◦ 원래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별초 ◦ 규모가 커지자 ()와 ()로 나뉘고, 몽골에서 도망쳐 온 이들인 ()이 통합

3. 무신집권기 농민, 천민들의 반란

1) 원인

- ① 무신집권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
- ② 무신들이 집권한 것에 대한 문신들의 반란
- ③ ()과 같은 ()출신의 무신집권자들이 등장하면서 당시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조

2) 대표적인 농민, 천민봉기



① 반무신란

㉠ ()의 난

()은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반란을 일으킨 9월에 체포되어 개경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을 처형한 이후 당시 무신집권자였던 정중부와 이의방은 신속하게 ()군의 거점 지역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제압하였고 이 사건 이후 경주로 유배를 간 의종은 ()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 ()의 난

1174년 고려 서경유수 ()의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다. 초기에 ()이 일으킨 반란의 진압이 실패하면서 난은 더욱 커졌고, ()의 군대가 개경을 위협하자 집권자 이의방이 직접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억제하였으나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이의방은 정중부의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리고 ()의 난은 난이 일어난 지 22개월 후인 1176년에 가서야 진압이 되었다.

② 대표적인 농민봉기

㉠ ()의 난

()의 난은 1176년(명종 6) 공주 ()에서 일어난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이들의 반란은 소에 대한 가중된 수탈 정책 때문이었다. ()가 일으킨 반란의 규모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명약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는 등 회유책을 실시하였으나, 정부의 회유로 반란군이 물러나자 주동자를 체포하고 반란을 진압하였다.

㉡ ()·효심의 난

1193년(명종 23) 경상북도 청도의 운문사를 중심으로 ()가 일으킨 저항이 초전의 효심, 밀성의 저전촌 등의 저항과 통합되면서 경상도 전역에서 저항이 연합된 농민반란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③ 대표적인 천민봉기

㉠ 전주 관노의 난

1182년 전주에서 군사들과 관노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당시 전주지방의 지방관과 주리의 횡포에 반발한 주현군, 관노, 승도, 농민들이 연합하여 봉기한 사건이다.

㉡ ()의 난

()의 난은 1198년(신종 원년) 5월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노비들이 시도했던 봉기로 이들은 무리를 모아 궁궐로 쳐들어가며 ()을 우선 죽이고 나서 각 노비의 주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노비에 관한 문서를 불태워 없애는 순으로 반란을 계획하였다. 이들의 봉기의 목표는 "장수와 재상에 씨가 따로 있는가."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비신분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었다. 즉, 천인 신분들이 일제히 일어나 주인을 죽이고 천적을 불태워 고려에서 천인의 존재를 없애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최광수(), 이연년 형제(), 이비, 폐좌()와 같이 각각 옛 삼국의 부흥을 주장하는 봉기도 나타남